

‘현실과 이성’ 사이 빛나는 상상력

제24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24’ ... 16일까지
강민기·박호은·장재민·윤준영 참여... 오늘 작가와의 대화

인생에 있어 청년의 시기는 고민이 많은 때다. 추구하는 것과 이를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자칫 방황을 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좌충우돌하던 시기의 꿈들은 빛나는 순간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현실과 이성을 모티브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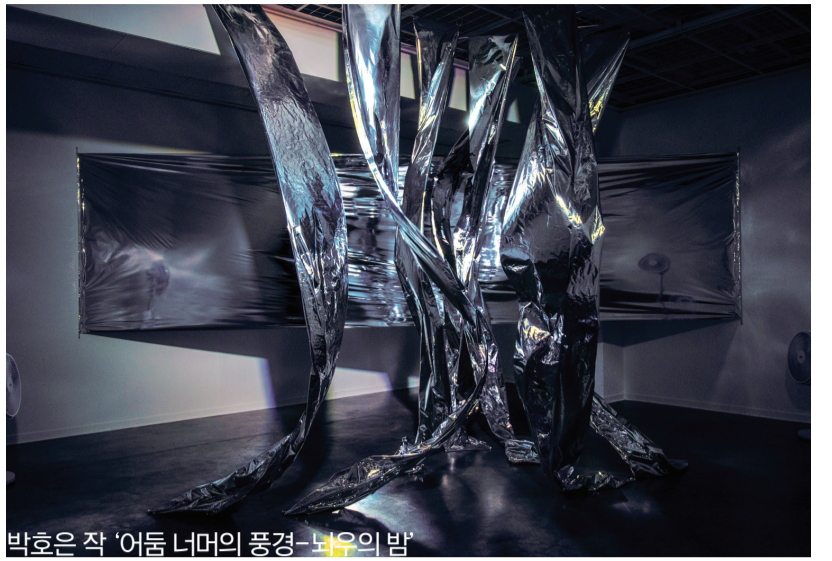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제24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24’가 그것.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사이: 현실과 이성’을 주제로 강민기, 박호은, 장재민, 윤준영 작가의 작품을 1-5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하정웅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고 청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01년 시작된 청년작가초대전은 지금까지 123명이 선정됐으며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다. 2024년부터는 (사)광주미술관회 요청으로 전시를 공동주최하고 (사)광주미술관회에서 ‘하정웅청년작가상’ 수여 및



강민기 작 'illusion space'



박호은 작 '어둠 너머의 풍경-나무의 밤'

전시 참여작가에 1인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는 눈 앞의 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불안과 사회적 부조리를 작품에 투영했다.

강민기 작가는 자본주의 폐해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했다. 그물의 형태로 사회 모순을 형상화했는데 어업용 통발과 낚시 그물은 인간의 욕망, 사회시스템의 오류 등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작품 ‘모색’, ‘변질된 상징’ 등이 관객을 맞는다.

박호은 작가는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적 내면의 불안을 초점화했다. 인간관계의 소통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모티브로 작업했으며 특히 반복되는 고통의 근원에 주목했다. ‘어둠 너머의 풍경-여명의 숲’의 시작점은 내면의 심상을 탐색한 작품으로 개인적인 불안과 우울을 극복해가는 여정을 구현했다.

풍경화 작가인 장재민은 익히 알려진 풍경과는 다른 작업을 시도했다. 실제 풍경에 대한 사실 묘사가 아닌 형태가 일그러진, 원근법적인 해석이 무관한 작품을

시도했다. 재개발된 공사 현장 등 황폐화된 자연이나 인적이 드문 공간을 기호화함으로써 현대사회가 내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는 최근작인 ‘섬 그림’ 시리즈로 환경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담아낸다.

실존에 대한 불안을 주제로 창작을 해온 윤준영 작가의 주요 모티프는 인간의 감정. 작업의 밑바탕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투사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먹과 콩테를 이용해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배치함으로써 감정을 다층적으로 담아낸다. 초기 작품이 불안한 현실의 모습을 어둡고 슬퍼 떠 있는 등대 등으로 이미지화한 반면 2022년부터는 내면의 감정을 형상화한다.

전시와 맞물려 청년 작가들의 미술 세계와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도 펼쳐진다.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는 강민기, 박호은, 장재민, 윤준영 작가를 비롯해 부산시립미술관 강선주 학예연구사, 철학학교 해움 허경 교장, 광주비엔날레 강성은 팀장, 조선대 양조롱 초빙교수 등이 일반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대화의 시간에는 저마다 지향하는 작품 세계를 비롯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창작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재민 작 '섬 그림 #10'



윤준영 작 '어딘가에'

‘소원 나무’를 찾아서



ACC 수요극장 '나무, 물고기, 달' 공연 장면.

(ACC 제공)

ACC 수요극장
‘나무, 물고기, 달’
5일 문화정보원

수미산에 자리한 ‘소원 나무’에는 바라는 모든 것을 이뤄준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기적을 꿈꾸며 함께 길을 떠난 소년과 소녀는 진리를 찾아 고행하던 순례자, 나무에서 태어난 사슴, 수미산 꼭대기에서 생겨난 물고기를 마주한다.

여러 인물들이 소원나무를 찾아가는 과정은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묘사된다. 그럼에도 소년과 소녀가 나무를 만나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에 다른 방법이란 무엇일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ACC 수요극장 일환으로 ‘나무, 물고기, 달’을 오는 5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B3(극장3)에서 펼친다. 국내 엄선된 공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기획으로 국립창극단이 2021년 첫선을 보인 ‘나무, 물고기, 달’을 상영할 예정이다.

작품은 ‘나무’를 찾아가는 조밀한 여정 속에 부채춤과 탈춤, 창극의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다. 연출은 배요섭이 맡았

며 김춘봉이 극본을 집필해 작품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사유하게 한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꾼 이자람, 탈춤꾼 허창열 등이 출연한다.

이야기꾼 역할을 소화하는 탈지기를 비롯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녀, 자신이 키우는 소 108마리가 아닌 진짜 형제와 가족을 찾고 싶은 소년 등 개성 있는 캐릭터도 흥미롭다. 천년 고행 끝에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순례자, 자신의 삶이 꽃피길 바라는 사슴나무, 인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험한 물고기 등 동화적 상상력이 가미돼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2022년부터 펼쳐 온 ‘ACC 수요극장’은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기획이다”며 “인도의 신화 ‘칼파 타루’와 한국 제주 신화 ‘원전강 본풀이’ 등 동양의 오랜 이야기를 바탕으로 탄생한 ‘나무, 물고기, 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매혹적 미니멀리즘



광주독립영화관
‘부모 바보’
8일 관객과 대화

영화 '부모 바보' 한 장면.

(ACC 제공)

사회복무요원 ‘영진’과 그의 담당자 사회복지사 ‘진현’.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영진은 유독 지각이 잦다.

며칠 후 진현은 출근길에 다리 밑에서 나오는 영진과 마주친다. 자조지중을 들어보니 아버지의 집에 분인의 방이 없어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진현은 우선 영진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다. 서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진현은 점점 마음이 동하는데..

매혹적인 미니멀리즘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 한 편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영화관)이 이종수 감독 ‘부모 바보’ GV(관객과의 대화)를 오는 8일 오후 3시 영화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GV에서는 영화를 상영한 뒤 이종수 감독, 정보라 프로듀서와 함께 영화 관련 토크를 나누게 된다. 주역 백진현 역할을 맡은 윤혁진 배우와 안은수(임영진 분) 배우도 자리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영화는 풍부한 서사를 부여하는 대신 몇 가지 상황을 반복,

기이한 인간들의 자화상을 그린다. “특정 장소와 동작, 대사가 반복적으로 맞물리면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정한석 프로그래머(부산국제영화제)의 평은 작품의 성격에 잘 드러난다. 인물들은 대사를 줄인 채 자신들이 지나간 흔적을 오려 보여준다. 그 속에서 인물들의 사정과 속내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으나 공간을 오려 응시하는 미학과 흔적들, 사운드와 겹치면서 낯선 감흥을 만들어 낸다.

진행은 ‘소리굴다리’를 연출했던 구파수 문화이 감독이 맡는다. 구 감독은 2023년 이 작품을 통해 저항자들이 소리를 찾아 퍼포먼스를 펼치는 독특한 작품관을 드러낸 바 있다.

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실 관객들로부터 독특한 연출, 다양한 해석의 묘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모 바보’를 선보인다”며 “영화에 대해 떠오르는 다양한 궁금증, 호기심을 감독, 배우들과 함께 나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25 신춘문에 당선 시집’ 나왔다

광주일보 이문희 시인 등 당선자 13인 시·소감·심사평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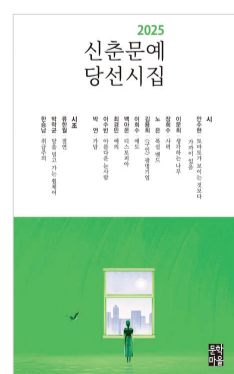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보다 밝고 희망적인 주제를 생각했어요. 삶도 녹록지 않은데 신춘 시까지 어렵고 힘들면 안 될 것 같았죠. 되도록 작은 것을 말해도 자기목소리로 분명히 자기색깔을 입히고 싶습니다.”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자 이문희 시인은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사유를 끝까지 밀고 가는 힘. 완성

도에 중점을 두고 시를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없고 작위적이고 모호한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가끔씩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문희 시인의 ‘생각하는 나무’를 비롯해 2025 신춘문예 당선 시를 모은 작품집이 발간됐다.



도서출판 문학마음에서 발간된 ‘2025 신춘문에 당선시집’은 당선자 13인의 시와 신작시, 당선소감, 심사평을 담고 있다.

이문희 시인 외에도 안수현(경향신문), 장희수(동아일보), 노은(매일신문), 김용희(문화일보), 이희수(부산일보), 백아은(서울신문), 최경민(세계일보), 이수빈(조선일보), 박연(한국일보)의 시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시조 부문 류현철(동아일보), 박락군(서울신문), 한승남(조선일

보)의 작품도 수록돼 있다.

2025 신춘문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어느 해보다 응모작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절망일수록 ‘문학’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문정들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이문희 시인은 “시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야 마음이 된다. 따로 뭘 찾아서 하는 일이 아닌, 삶 속에서의 시, 시 속에서의 삶. 시와 삶이 함께 가는 일상이며 희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집 기획위원들도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색조를 지녔을지언정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물씬 묻어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